

치 사

들녘에서는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걷이가 한창이고, 가지마다 잎새마다 물들은 가을 산색은 고즈넉한 도량과 더할 수 없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확까지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때에, 천년 고찰 진관사가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하는 것은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더욱 젖어들게 합니다.

진관사 국행수륙대재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봉행하는 오늘은 명실상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봉행하는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사로운 날에 소중한 분들과 많은 불자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륙재는 우리 문화 중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주, 무주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불교의식으로 고려시대부터 천 년 동안이나 전승되어온 장엄하고 성대한 의례입니다. 특히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는 조선 건국과 함께 국가와 왕실 주도로 거행하였던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국행수륙대재를 거행했던 수륙사가 발굴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엄한 불교의례가 진관사라는 사찰에서 600여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그 가치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남아 우리 국민 모두가 아끼고 지켜야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행하는 국행수륙대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자리인 만큼 참여하는 사부대중 모두가 축하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사찰 진관사의 국행수륙대재에 수희 동참하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와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전통의 국행수륙대재를 면면히 지켜오고 국가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정성을 다하신 계호스님과 진관사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고 모든 분들께서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불기2558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